유적지 순례 104

始祖 太師公과 羅末의 政勢

시조 태사공과 라말의 정세

신라(新羅)의 쇠퇴기(衰退期)

신라는 3국을 통일한 서기 650년대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에서 770년 혜공왕(惠恭王)까지 120년 동안 전성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변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무열왕의 직계손으로 36대 임금에 오른 혜공왕은 황금시대 최후로 16년을 재위하는 동안 말년에 여색에 빠져 국사를 돌보지 않다가 마침내 반란군에게 피살되었다. 임금이 살해되고 부터는 신성하던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둘러싼 진골(眞骨)귀족(貴族)의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이권쟁취를 위한 귀족간 쌍움이 치열해져 이후 신라가 망하는 150 여 년 동안 국왕 20명이 바뀌는 혼란을 빚으며 그 권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35대 경덕왕(景德王)은 24년 동안 재위하면서 당나라와 교역을 활발히 하여 산업 발전에 힘쓰고 황룡사대종(皇龍寺大鍾)을 주조하며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佛國寺)를 창건하는 등 신라(新羅)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그 아들 혜공왕(惠恭王)은 겨우 8세에 즉위하여 태후(太后)인 모후 만월부인(滿月婦人) 김(金)씨의 섭정(攝政)을 받았다. 처음에는 당나라와 교류가 빈번하였으나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해지는데 왕은 철들 나이에 들면서 사치와 방탕에 흐르니 정치가 문란해 졌다. 즉위 4년에는 일길찬(一吉飡) 대공(大恭)의 모반이 일어나더니 2년 뒤에는 대아찬(大阿飡) 김융(金融)이 모반하고 다시 5년 뒤에 이찬(伊飡) 김은거(金隱居)가 모반하였다. 왕이 25세 되었을 때 마침내 이찬(伊飡) 김지정(金志貞)이 난을 일으키니 그들에 의해 왕과 왕비가 살해되고 이 난을 평정한 상대등(上大等)이 선덕왕(宣德王)으로 즉위했다. 선덕왕 재위 15년, 같이 난을 평정했던 상대등 김경신(金敬信)이 원성왕(元聖王)으로 즉위하였다. 13년간 평정을 유지하였으나 그 뒤를 이을 태자가 미리 죽고 손자 소성왕(昭聖王)이 즉위 1년 만에 승하하여 그 아들 애장왕(哀莊王)이 13세에 즉위하여 섭정을 받더니 섭정을 하던 숙부 김언승(金彦昇)과 아우 제옹(悌邕)의 반란으로 왕이 살해 되었다.

김헌창(金憲昌)의 반란과 골품제(骨品制)

김언승(金彦昇)이 헌덕왕(憲德王)으로 즉위하니 그 밑에서 시중(侍中)과 도독(都督)을 역임한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키었다. 김헌창은 본디 선덕왕이 승하하여 다음 왕으로 추대된 그 족자(簇子) 김주원(金周元)의 아들인데 김주원은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냇물을 건널 수 없어 왕궁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이는 하늘의 뜻이라 하여 원성왕(元聖王)을 추대했던 것이다. 이에 내심으로 늘 불만을 품고 있던 김헌창이 웅천주(熊川州-공주)의 도독으로 나가 있다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정하여 건원(建元)까지 한 뒤에 자신이 도독으로 있던 무진주(광주)와 완산주(전주), 청주(진주), 사벌주(상주) 등을 공략해 취하고 이어 국원(충주), 서원(청주), 금관(김해) 등 고을을 복속시키니 그 세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곧 장웅(張雄), 위공(衛恭), 제릉(悌凌) 등이 지휘하는 정부군에 밀려 본거지인 웅진성으로 철수하여 10여일의 공방전 끝에 패해 자살하고 친척과 부하 등 239명이 사형되었다.

그리고 3년 뒤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金梵文)이 고달산(高達山)의 산적 수신(壽神)과 함께 1백여명의 무리를 이끌고 반란하여 평양(양주)에 도읍하고자 북한산(서울)을 공격했으나 도독 총명(聰明)에게 패해 사형되었다.

이처럼 격심해진 왕위(王位) 다툼은 왕권의 약화와 사회 혼란을 초래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전통적 신분 질서인 골품제(骨品制)를 붕괴시켰다. 이때 진골(眞骨)위주의 지배체제에 반발을 보였던 계층은 6두품(六頭品)이었다. 신라 골품제는 3종 8골품으로 되어 있는데 1종 왕족인 성골(聖骨)이 제1골, 진골(眞骨)이 2골이고, 2종의 귀족은 제3골 6두품, 제4골 5두품, 제5골 4두품이며 3종의 평민은 제6골 3두품, 제7골 2두품, 제8골 1두품이고, 노예계급은 여기서 제외되었다. 골(骨)이란 혈을 뜻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복색(服色), 거기(車騎), 기구(器具)와 주택 등에도 각기 엄격한 차별이 있었다. 귀족인 4두품 이상만이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6두품은 아찬(阿飡)에서 급벌찬(級伐飡)까지이고 5두품은 대내마(大奈麻)에서 내마(奈麻)까지, 4두품은 대사(大舍)에서 조위(造位)까지 벼슬을 하나 3두품 이하는 관리에 등용될 수 없다.

이처럼 왕족인 성골 이상은 국왕까지도 될 수 있었으나 6두품 이하는 관직 승진에 제한을 받거나 벼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더구나 신라 말기에 들어 당나라와 교류와 유학이 활발해지면서 한해에 200명의 유학생이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자 의식에 큰 변화를 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선진 문물에 익숙하고 신사고(新思考)를 가진 인재가 속출하니 유학자(儒學者)로서 명성을 떨친 최치원(崔致遠), 최승우(崔承祐), 최언위(崔彦扌爲) 등 이른바 3최가 다 당에서 문과에 급제하고 돌아왔으며 승려로서는 낭혜화상(朗慧和尙) 김무염(金無染) 등이 당(唐)에서 많은 학업을 쌓고 돌아와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애쓰며 골품제의 모순을 앞장서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의 이상과 너무나 괴리됨에 번번히 좌절한 나머지 거유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해인사(海印寺)로 운둔하였으며 최승우같은 이는 뒤에 후백제를 일으킨 견훤(甄萱)의 막하에 들어가 고려의 왕건(王建)에게 보내는 격서(檄書)를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골 이상의 왕족세력에 불만은 품은 6두품계층에 덩달아서 하층 5, 4두품과 평민도 일부 지방세력과 결탁하여 진골왕족계층에 대항하기도 하고 조정의 권위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골품제도가 흔들리면서 성주나 호족(豪族)이 각 지역에서 웅거하면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호족은 사병(私兵)을 기르고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농민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영주(領主)가 되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9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고갈되는 재정의 확충을 위해 조세의 징수를 독촉하였다. 이에 농민들이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리를 지어 도둑이 되었다.

신라의 조세제도는 원래 고구려, 백제와 같은 조용조(租庸調)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 조용조란 중국에서 시작되어 당(唐)에서 정비된 것으로 조는 구분전(口分田-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나라의 공전)에 매기는 세이고 용(庸)은 국가에 대한 노역 대신에 피륙을 내는 세이며 조(調)는 호구마다 각처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것이었으며, 화폐제도가 없던 당시에는 모두 곡식, 필육, 특산물 등을 바치는 현물세였다.

왕조(王朝)의 문란과 군웅(群雄) 할거(割據)

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은 경문왕(景文王)의 딸로서 재위 2년만에 죽은 오빠 정강왕(定康王)의 유조(遺詔)에 따라 서기 887년 즉위해 12년을 재위하면서 각간(角干) 위홍(魏弘)과 간통하고 궁중에 여러 미소년을 끌어들여 음행의 열악에 빠졌다. 즉위 5년 째 조세가 걷히지 않고 병제(兵制)가 퇴폐하여 도처에서 군웅(群雄)이 할거하였다. 여왕즉위 3년째인 889년 사벌주(상주)에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가 모반하더니 이태 뒤에는 마침내 후삼국시대를 전개하는 주역들인 양길, 기훤, 견훤 등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반란의 기반은 농민층이었고 농민의 모반으로 농촌의 파탄은 국가 재정을 고갈시켜 국방력이 무너져 왕실의 지배력은 경주 일대로 축소되고 대부분 지역은 반란을 일으킨 장수와 호족의 수중에 들어가니, 중국의 주나라 같은 형세가 되었다. 양길(楊吉)은 북원(원주)를 중심으로 모반하여 국원(충주) 등 30여 읍성을 공취해 세력을 펼쳤다. 그리고 서기 891년 궁예를 휘하로 맞아 들여 판도를 크게 넓혔다. 그러다가 궁예의 세력이 커짐을 두려워 그를 치려다가 역습을 받고 패했다.

기훤(箕萱)은 891년에 죽주(안성)에서 군사를 모아 반란하여 막하에 궁예(弓裔) 등 뛰어난 인물을 두었으나 성질이 포악하여 크게 떨치지 못하였다. 이에 궁예가 원회, 신훤 등과 함께 이탈하여 양길에게로 가니 기훤은 망했다.

견훤(甄萱)은 상주의 가은고을 출신으로 이(李)씨이며 농민 아자개(阿慈介)의 아들이니 신라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없는 평민 출신이었다. 어미가 들일하면서 강보에 쌓여 나무그늘에 두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다는 설화가 있다. 자라면서 체구가 웅대하고 지기가 비범하였다. 서남해 지방의 방수(防戍)에 부임하여 창을 벼게삼고 적을 기다렸는데 그 용기가 병사에 앞섰다. 그 공로로 비장(裨將-도독의 막료)가 되었다.

진성여왕(眞聖女王) 6년 892년 총애 받던 소인배가 정권을 농간하여 기강이 문란하고 기근이 곁들어 백성이 유이(流移)하고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딴 마음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남해안 지역 주현(州縣)을 취하니 이르는 곳마다 호응하여 무리가 달포사이에 5천여명에 이르렀다. 드디어 무진주를 습격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임금과 같이 되었는데 자서(自署)하기는 [신라 서면 도통지휘병마절제 치질절도독 전무공등주군사(전주,광주,공주)행전주자사겸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군개국공 식읍 이천호]라 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작위를 일컬었으며 때마침 원주의 양길이 강성해지자 멀리 관직을 제수하여 비장을 삼았다.

효공왕(孝恭王) 4년 서기 900년 견훤(甄萱)이 서북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전주)에 이르니 백성들이 맞아들여 환영하므로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삼국의 기원을 상고해보니 마한(馬韓)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세(赫世-혁거세)가 발흥하였으므로 진한(辰韓)과 변한(卞韓)이 따라 일어났다. 이에 백제는 금마산(익산)에서 개국하여 6백년이 지났는데 총장(당 고종년호)연간에 신라 청원을 받아 소정방을 보내 선병 13만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고 김유신도 황산을 거쳐 사비에 이르기까지 휩쓸어 당군과 합세, 백제를 공멸하였다. 지금 내가 완산에 도읍을 하고 어찌 감히 의자왕의 숙분(宿憤)을 씻지 아니하랴" 하고 드디어 후백제왕이라고 자처하고 모든 관서를 설치하여 관직을 정했는데 대게 신라의 것을 답습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 사신을 보내 견훤에게 검교태보(檢校太保)를 더하여 그 작위를 인정해주었다. 이윽고 막하에 최승우같은 학자도 참여하였으니 국가의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

이듬해 901년에는 지금의 합천으로서 서부영남의 요지이며 옛 삼국시대부터의 접전지인 대야성(大耶城)을 공격하였으나 항복받지는 못했으며 북으로는 양길을 치고 후고구려 임금이 된 궁예(弓裔)와 자주 충돌하였다. 효공왕(孝恭王)14년 910년에는 서남해안 배후의 요지인 금성(錦城-나주)이 궁예의 장수 왕건(王建)에게 공략되어 후고구려에 투항한 것을 분히 여겨 보기병(步騎兵) 2천을 거느리고 가 열흘이 넘도록 포위망을 풀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주포구에서 왕건과 싸워 대패하고 2년 뒤 신덕왕(神德王)1년 912년 왕건과 더불어 덕진포(德津浦-영광)대전에서 크게 패했다.

고려(高麗)와 후백제(後百濟)

경명왕(景明王) 2년 918년 6월 왕건(王建)이 철원경(鐵圓京)에서 궁예(弓裔)를 폐출하고 고려태조(高麗太祖)로 즉위하니 견훤이 듣고 8월에 일길찬(一吉飡) 민극(閔郤)을 보내 치하하고 공작선(孔雀扇)과 지리산 죽전(竹箭) 등을 선물했다. 또 사신을 오월(吳越)에 보내 말을 바치니 오월왕이 보답하고 작위를 중대부(中大夫)라 제수했다. 이처럼 중국과 외교를 가지면서 신라를 압박하는데 917년 신라에서 경명왕(景明王)이 즉위하니 국운을 회복하려고 중국의 후당(後唐)에 조공을 보내 구원을 청하고 새로 건국한 고려와 화친을 하여 협력을 구하니 후백제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경명왕 4년 920년 견훤은 다시 보기병 1만으로 산악을 넘어 합천의 대야성을 공격해 침략하고 진군하여 군사를 진례성-청도)로 옮기니 경명왕은 아찬(阿飡) 김진(金津)을 고려에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에 왕건이 군사를 출동하자 견훤은 신라와의 협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이로 인하여 고려와 후백제는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되고 신라와 고려는 친밀하게 되어 후백제를 공동의 적으로 상호 협력하니 924년 신라 경애왕(景哀王)이 즉위하자 고려와 방위 조약으로 유사시 1만의 지원병을 고려에 청할 수 있었다. 이에 분노한 견훤이 아들 수미강을 보내 대야와 문소(의성)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의 영하인 조물성(예천부근)을 공격했으나 득이 없이 돌아가 왕건에게 좋은 말을 선물하였다.

경애왕(景哀王) 2년 925년 10월에 견훤이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조물성에 이르니 왕건도 정병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대전하였다. 그러나 승부가 나지 않자 서로 화친하고 견훤은 귀로에 신라의 20여성을 빼앗고 중국의 후당에 사신을 보내 번국(藩國)의 신하라 칭하니 후당에서 검교태위겸시중 판백제군사를 제수하고 백제왕 식읍 이천오백호로 하였다.

경애왕 3년 926년 4월에 후백제의 볼모 진호가 고려에서 병사하니 견훤이 고려의 볼모 왕신을 죽이고 전년에 보낸 준마를 돌려 받았다.

〈태사공 실기 인용〉

문 충공 휘 근 묘역 참배

고양유림 및 용강서원 유적지 순례교육

2015년 3월 31일 7시 30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앞에서 40여명이 출발하여 충북 음성읍 삼생4리에 있는 충정공 박서의 묘을 참배하고 음성박씨 문중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고 문 충공 묘역인 충북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1시 20분에 도착하여 문충공 부회장 권영돈씨와 권오섭 총무의 안내로 부조묘 사당에서 문중에서 제공하는 주과포를 진설하고 용강서원 원장이 대표하여 강신례 참신례 헌작례하였다. 고유 축은 안동권씨 기로회장 권정택씨가 제문을 지어 낭독하고 해설자 최영숙씨가 해설을 하였다.

사당고유를 맞히고 묘역을 돌아볼 때 수석부회장이 설명을 하였다. 문중에서는 미리 준비한 음료와 다과 타월을 선물로 증정 하였다. 그리고 묘역의 선현들의 문헌을 권정택 회장이 직접 찬하여 배포 하였다.

3시가 넘어 묘역을 출발하여 경기 양주에 조선 숙종 경종 영조 때의 이조판서 조상경의 묘소를 참배하고 경기 양주 장흥 충장공 권율도 원수의 묘역에 도착하여 권병일 씨가 선두로 안내하여 상위의 강정공 휘 철 묘를 참배를 하고 아래에 계신 권율도원수 묘에 헌작하였다. 그리고 권정택 회장이 문충공과 공의 4아들을 자세히 해설을 하였다.

諱 近 贊成事 典文衡 詩號 文忠 號 陽村

공민왕 원년 1352년 임진 11월 6일 을해 송도에서 출생하였다.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의 옛 적성 구연은 부친의 별업으로 그곳에서 성장하여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에게서 수학하고 야은 길재 등 많은 문인을 길렀다.

春秋館檢閱官.禮文館修撰. 長興庫使 兼 進德博士. 禮曹佐郎. 軍簿左郎知制敎
(춘추관검열관.예문관수찬. 장흥고사 겸 진덕박사. 예조좌랑. 군부좌랑지제교)
奉常大夫 春秋館編修官. 左司議大夫 右文館直提學. 奉順大夫로
(봉상대부 춘추관편수관. 좌사의대부 우문관직제학. 봉순대부)로
判典校寺事 進賢館直提學. 判尉衛寺事. 奉習大夫로 成均館大司成
(판전교사사 진현관직제학. 판위위사사. 봉습대부로 성균관대사성)
寶文閣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 簽書密直司事. 入學圖說. 春秋接見錄
(보문각제학동지춘추관사상호군. 첨서밀직사사. 입학도설. 춘추접견록)
禮記淺見錄. 資憲大夫檢校直 禮文館春秋館太學士 兼 成均館大司成 知製敎
(예기천견록. 자헌대부검교직 예문관춘추관태학사 겸 성균관대사성 지제교)
嘉靖大夫 簽書中樞院事添書都評議使司事寶文閣學士 花山君
(가정대부 첨서중추원사첨서도평의사사사보문각학사 화산군)으로 開國原從功臣修文殿轉學士 (개국원종공신수문전전학사)이며 태종9년 1409년 2월 14일 58세 졸 임종 시 번뇌와 비바람이 불다가 운명하자 비와 바람이 멈추었다고 전하였다.

장자 踐(천) ;摠制公(총제공)

司憲府持平(사헌부지평). 司憲府監察(사헌부감찰). 完山判官(완산판관) 및 副令(부령). 右軍同知摠裁(우군동지총재). 평안도成川府使(성천부사). 遺愛碑(유애비)가 세워졌다. 신라 경순왕 사당 敬天廟를 창건하였다. 생몰 년 월 일 미상 세종 13년 1431년 8월 24일에 졸했다.

차자 蹕(제); 文景公(문경공)

자는 중의(仲義)이고 아명은 黔童 초명은 稻(도) 호는 止蹕(지제)이다.

우왕 13년 1387년 6월 1일에 송도에서 태어났다. 集賢殿副提學(집현전부제학). 예조참판 仁順府尹(인순부윤). 平壤府尹(평양부윤). 漢城府尹(한성부윤). 집현전을 확대하여 賜暇讀書(사가독서)를 실시 自治通監訓義(자치통감훈의)를 完成 歷代世年歌(역대세년가) 著述(저술). 藝文官大提學(예문관대제학). 中樞院使(중추원사). 成均館大司成(성균관대사성). 知春秋館事世子貳使(지춘추관사세자이사). 左參贊(좌참찬). 崇政大夫 右贊成(숭정대부우찬성). 治平要覽을 撰進 龍飛御天歌(용비어천가)를 지었다. 國朝寶鑑(국조보감)찬진하고 東方族譜의 嚆矢(효시)인 가보를 孝道하여 뒤에 차남 所閑堂 權擥(소한 당 권람)에게 成化譜가 나오게 하였다. 左翼原從功臣(좌익원종공신) 1등에 녹훈, 純忠積德 秉義輔祚功臣 大匡輔國 崇祿大夫 領議政府使(순충적덕 병의보조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부사) 吉昌府院君(길창부원군)이며1446년 4월 16일에 졸하니 향수가 59세이다.

3자 跬(규) 齊簡公(제간공)

태종의 3녀 慶安宮主(경안궁주)와 혼인하고 崇政大夫吉川君(숭정대부길천군) 駙馬 吉昌尉(부마길창위) 友軍都摠制(우군도총제) 三軍都摠制府(삼군도총제부) 安州道都

△고양유림 문충공 묘역 참배

△문충공 부조묘 참배

節制使府(안주도도절제사부)이며 4월3일 29세로 졸하였다.

4자 蹲(준) 安肅公(안숙공)

태종 5년1405년 8월 6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嘉善大夫大司憲(가선대부대사헌) 輸忠協贊靖亂功臣(수충협찬정란공신) 漢城府尹戶曹參判(한성부윤호조참판) 吏曹判書(이조판서) 刑曹判書(형조판서) 知中樞院事(지중추원사) 戶曹判書(호조판서) 咸吉道都觀察使兼咸興府尹(함길도도관찰사겸함흥부윤) 세조 5년 1459년 4월 30일 졸하였다.

擥(람) 所閑堂(소한당) 시호는 翼平(익평)

止蹕(지제)공의 차자로 태종 16년 1416년 5월 7일 한양에서 출생 소시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기계가 많고 대지가 있었는데 문종즉위년 1450년10월에 남의 권유로 식년시에 나가 친책 친척을 포함해 1거 3장을 하였다.

계유정란을 성공시켜 수양대군과 함께 輸忠衛社協策靖亂功臣(수충위사협책정란공신) 1등 책훈되고 同副承旨(동부승지) 우부승지 經筵參贊官(경연참찬관) 寶文閣直提學(보문각직제학) 知製敎兼判善工監事(지제교겸판선공감사) 同德左翼功臣1等 吉昌君에 봉하였다. 吏曹判書兼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官事(이조판서겸집현전대제학지경연춘추관사) 1458년12월 右贊成(우찬성) 1459년10월 左贊成(좌찬성) 11월 右議政(우의정) 1462년5월 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左議政監春秋監事世子府(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감춘추감사세자부)가 되었다. 1463년 9월에는 吉昌府院君(길창부원군)에 봉해졌다. 세조11년 1465년2월6일 졸하니 향년 50세이다.

〈권정택〉